

서구, 양동서 '광주1호 착한시장·착한거리' 선포

100년 전통시장에 나눔경제 모델 본격 도입... 전국 5만번째 착한가게도 탄생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100년 전통의 양동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나눔과 연대의 착한경제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섰다.

서구는 10일 양동전통시장에서 '광주1호 착한시장·착한거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착한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중앙회장과 구계길 광주지회장, 양동전통시장 상인회, 양동 착한가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착한경제 확산에 뜻을 모았다.

양동전통시장은 1980년 5월 상인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했던 역사적 장소다. 서구는 이 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양동시장을 광주 대표 착한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포식에서는 양동시장의 명물인 '1969양동동닭 본집'이 전국 5만번째 착한가게로 등록되며 의미를 더했다.

다. 시장 입구에는 '착한시장 기념 조형물'도 세워져 시민과 방문객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국 단위의 나눔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 개 점포가 참여 중이다. 광주 서구는 총 1286개 점포가 착한가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56개소(13.4%)가 양동전통시장 내에 집중돼 있다.

서구는 이날 선포식을 기념해 양동전통시장 전용 '착한쿠폰'도 발행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 102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종이 쿠폰을 지급, 양동시장 내 착한가게 지정 점포에서 사용하도록 해 나눔과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포용적 소비복지' 정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양동전통시장은 정직한 상인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착한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순환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나눔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을 통해 총 3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3000명



에게 착한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서구 전체 착한가게의 35%가 착한쿠폰 가맹점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상생형 복지모델은 전국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혁신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서구의 이 사업을 발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대상 수상하기도 했다. /박석우 기자



HD현대삼호는 9일 대불공단 내 사외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흑서기극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수박 600통을 지원했다.

HD현대삼호, 흑서기 사외 협력사 근로자 수박 제공

62개사 6,800여 명 대상... 2회에 걸쳐 1,200통 지원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흑서기를 맞아 사외 협력사 근로자들의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수박을 선물한다.

HD현대삼호는 대불공단 내 사외 협력사 62개사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흑서기극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수박 1,200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점심시간을 맞아 1차로 600통을 제공했으며, 오는 8월 2차로 600통을 더 전달할 예정이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외 협력사 근로자들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023년부터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흑서기마다 사외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박 등 시원한 여름 과일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계약생산 방식으로 영암산 멜론과 수박을 사내 협력사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염양/김희선 기자

광양경제자청,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력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7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9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광양경제자청은 시도지사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이원화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이번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광양경제자청도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차기 개최지로 광양경제자청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 보건소, 읍면 순회진료로 폭염대비 건강관리에 총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남양면 중산마을에서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음·면 순회진료를 진행하며,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음·면 순회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 ▲기초 검사 ▲한의과 침 치료 ▲치과 진료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30회를 운영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순회진료 시에는 부채를 전달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초기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으며, 폭염 특보 시에는 외출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문자 사기(스미싱)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교육과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에 앞장서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순회진료는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 현장 중심 복지 실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나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신광면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며 현장 중심의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10일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임의석)이 지난 8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복지기동대원 6명이 참여

여해 낚고 훼손된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의석 신광면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이웃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 분도 소외 받지 않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희숙 신광면장은 "어르신께서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